

대만국제발명특장협회와 업무협정

발명진흥을 위한 교류 확대



U 리회는 지난 10월 1일 오후 7시 타이페이 Gala Hotel에서 대만국제발명특장협회와 업무협정을 맺었다.

이번 협정은 양국이 발명진흥을 위해 교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식재산권과 관련, 다양한 업무 및 협력 확대를 위해 체결되었다.

대만국제발명특장협회 Wu Kou-Chen 회장은 “자매결연을 맺은 만큼 한국과 대만·홍콩은 발명진흥 목적을 위해 자국의 제품 뿐만 아니라 정보 교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만국제발명특장협회에서 주관하는 전시회에도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회 민경택 상근부회장은 “한국·대만·홍콩은 오래전부터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아시아의 용 세 마리가 모인 이상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있을 2006 서울국제발명전시회를 소개하고 관련자료를 전달하였다.



우리회 32주년 창립기념식 개최

10년 근속직원 공로패 수여 등 간소하게



U 리회는 지난 10월 17일 오후 5시 한국 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32주년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간소하게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 민경탁 상근부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32년의 역사를 설명하고,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난관을 극복하고 발전을 거듭해 온 현 임직원과 선배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맞게 우리 진흥회도 발명의 인프라구축에서 사업화지원까지 다양한 업무를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업무와 조직을 혁신하여 세계 초일류의 지재권 전문기관으로 우뚝서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 여러분의 애사심과 업무에 대

한 열정이 필요하다. 다함께 노력하여 진흥회의 발전과 자신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10년 장기 근속한 이수진 과장과 정정숙 주임에 대한 공로패 수여 및 기념품 전달이 있었다.



「바이인벤션」첫돌맞이 기념행사 개최

올해 목표 50억 달성 무난할 듯



발 명품 전문 인터넷쇼핑몰인「바이인벤션」(www.buyinvention.com)이 첫 돌을 맞이했다.

우리회는 지난 10월 26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민경탁 상근부회장을 비롯, 유창훈 이사, 이집중 이사 그리고 각 팀장 및 담당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했다.

지난 해 10월 29일 서비스를 개시한 바이인벤션은 발명품을 개발한

우수 중소기업에게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일상 속에서 느끼고 원했던 발명품들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는 한편, 발명특허 제품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상품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구매건마다 전자보증보험을 발행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선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우리회 민경탁 상근부회장은 “바이인벤션이 발명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고 수익성 보다는 공익성을 우선시하며, 올해 특허청에서 세운 50억 달성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식재산정책위원 간담회 개최

특허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심도있게 토론



지식재산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다양한 정책의견 수렴을 위한 지식재산정책 위원 간담회가 지난 10월 20일 오전 8시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되었다.

김종갑 특허청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정된 윤대희 연세대교수 등 17명의 지식재산정책위원은 학계, 산업계, 법조계 등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이날 특허청은「지식재산강국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및 과제」를 안건으로 발표하고, 각 위원들은 이에 대한 정책자문을 구하는 등 특허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도있게 토론하

였다.

본 위원회 위원인 한국발명진흥회 민경탁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을 위해 특허기술을 담보로한 금융권의 자금지원 분야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 전문분야의 위원들도 소속 분야의 의견을 심도있게 제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정책의견 및 토론사항은 특허청의 지식재산강국 실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며, 발명·특허 관련기관 사업수행의 방향설정에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